

## 對 話

主 幹

### 희망에 산다

어떤 친구의 경험 얘기다. 애완 새 부부가 새끼들을 낳았다. 아파 트인지라 낮에는 맑은 공기와 햇빛을 쬌어 주기 위해서 배란다에 내놓았다가 저녁이면 들여 놓곤 했다. 그런데 어느날 밤에는 깜박 잊고 그냥 자버렸는데 때마침 寒波가 밀어 닥친 밤이었다. 아침에 비토소밖에 둔 새들 생각이 나서 허겁지겁 나가 보았더니 새 초롱 안의 작은 둥지 入口는 큰 새 엉덩이로 막혀 있었다. 얼른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더니 그것은 이미 일어 죽어있었다. 그래서 새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집어 왔더니 그 안의 남은 또 하나의 큰새와 새끼들은 無事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미 아빠 새 중의 한 마리가 추위를 몸으로 막아 가족을 寒波에서 구하기 위해서 몸을 내던 새이다. 글자 그대로 殺身成仁이다. 그 말을 들으니 사람

된 게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것은 아파 새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파인 내가 좀 더 부끄러울 수 밖에!

이 말을 아내와 주고 받았는데 아내曰, “그게 숫컷인지 어떻게 알아요, 난 알컷일거라고 짐작되는데!”라고 한다. 男性不信이다. 反面에 女性, 母性에 대한 誇示다. 그러니 숫컷이라는 데야! 그래서 그 새를 봐도 역시 男性(父性)이 優越한 것이 입증 된 셈이라고 맞 받았다. 그 순간에는 서로 그렇게 殺身成仁할 自信이 있어서 한 말이니 그래도 絶望的 存在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自身에게도 희망을 걸고 사는 수 밖에!

이 말을 들을 때 언제 누군가에게 들은 비슷한 얘기가 생각났다. 산 불이 지난 다음 시커멓게 된 그 지대를 밟고 지나면 어떤 사람이 발끝에 시커멓게 타다 남은 소북한 物體가 있기에 무섭코 찾더니 그 아래 여러마리의 병아리들이 깃을

털면서 뛰쳐 나오드란다. 그래서 그 物體를 다시 보았더니 제 새끼를 물고 모이를 찾던 어미 닭의 物體였다. 아마 산불이 물떡오니 제 새끼들을 품에 품어 불길을 막아 새끼들을 살려 낸 모양이다. 그때는 動物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半信半疑했는데 이번에 들은 얘기로써 더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人間은 그런 점에서 動物만큼의 確率은 없다. 까닭은 '생각한다'는 특권이 本能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왕왕 핑계, 도피의 소굴 노릇을 한다. 그러나 動物은 本能 그대로 있다. 그러므로 거기 핑계의 여유가 없다. 그러니 被造된 모습대로 行動할 수 있는지 모른다.

日本の 無教會系의 어떤 日人이 그들의 스승 內村을 치켜 올리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 內村의 집에 불이 났다.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쓴 原稿 등치를 재빨리 움어모아 안은 제 食口들은 아랑곳 없이 밖으로 뛰쳐 나갔단다. 그러함 그 日人의 辯은 바로 그것이 內村이 얼마나 使命感에 充溢한 人物이냐의 具體的 立證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남이 볼 수도 있고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게 핑계나 도피의

가능성이 아닌가? 최근 신문보도에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애비 되는 主人만 혼자 뛰쳐나와 살고 남은 食口는 몽땅 타 죽었다는데 그에게도 어떤 변명이 있을 것이다. 自身이 그렇지 않을 경우 혹시 그를 존경하는 弟子라도 있을 경우 그 무슨 창찬의 辯은 해 줄 수도 있을 테지! 그래서 人間에게는 殺身成仁이란 말만 남은 현실이 왜가고 있는지 모른다. 또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理解가 사람들을 계속 감동 시키는지도 모른다.

나도 예수의 十字架의 죽음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에 언제나 감격한다. 그것을 贖罪의 죽음이라 부르건, 또는 代贖의 죽음이라고 하건, 아니면 當時의 弱者와 버림 받은 者들을 감싸다가 당한 희생이건 간에 그는 殺身成仁의 原型이다. 그에게서 소원만으로 내세우던 喪失된 人間의 本然의 모습이 再顯했거나 아니면 人間의 內部의 소원의 具顯이라고 믿어지기에 그의 十字架의 죽음은 數千年을 두고 계속 반복해도 못다 하는 감격의 事件이며 나가서 歷史를 계속 方向 전환케 하는 活火山이 되는가 보다. 그때! 人間들에게 희망을 걸자! 이 歷史의 반복판에 分明히 예수라는 人物이 存在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잊지 않는 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재는 짐승보다 못한 人間들이 판을 치는 현실이지만! 나라고 例外라는 말로 들지는 말아 주기를!

### 장미를 싸주며

벌써 老衰현상인지 神經痛 때문에 한달 이상을 손을 쓰지 못했다. 寒波가 물려왔는데 마당에 있는 몇 포기인 장미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손을 쓸 수 없었다가 땅이 이미 얼어버릴 무렵에 그것을 짚으로 싸주기로 마음 먹었다. 흠어진 짚들을 다듬어 가시 돌은 장미들을 하나씩 애기 다루듯 조심하며 감싸고 노끈으로 묶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겨우 한 그루만 싸고 난 나는 착잡한 마음을 안은채 집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웬지 너무나 한가하다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그루의 장미 중에 하나만 보호를 받고 남은 것들은 앙상하게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數週를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가고 들어 올 때마다 마음에 걸린다. 추위에 떨려면 함께 떨고 보호를 받을려면 함께 받았어야 할터인데 한 그루만이 特惠를 받고 있으니 그 외의 것들이 더욱 비참해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싸준 저것을 도루 벗겨 버릴가 하다가 마음 먹고 나머

지 것들을 싸주기로 결심 한 것이다.

내 마음이 착잡했던 까닭은 이 寒波에 집 없이 떨고 있는 人間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따뜻한 방에서 살지만 불 한번 지피지 않는 寒房에 갇힌 이들이 떨고 있을 터인데 단지 제 마당에 서 있다는 理由 때문에 이 장미들을 출지말라고 감싸주는 내 꼴이 寒心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값싼 감상에 不過하지! 내가 왜 그쯤이야 몰라!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자체도 결국 제 할 일 못하는 변명을 하고 싶은 心理作用일 거야! 그쯤도 알지! 쓰기 시작할때 그렇게 意識하지 않았지만 쓰다보니 이런 글을 쓰는거나 장미를 싸주는 거나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마당의 장미를 싸주고 내 寒心한 꼴을 싸주기 위해 이 글을 쓰고! 변명못한 무덤이 없다드라! 변명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能力的 限界가 있으니), (내가 점점 질머진 責任도 다 못하는데 그럴 여유가 있어야지!), (나 하나이고도 할 사람들이 있지),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은 그 나름대로의 요람이 있을 테지)!! 뭐 생각하는 구멍이 막혀서 도피구를 못 찾을가! 단지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自己가 초라해 보여 그래

지. 그런데 싸주던 장미가 그 가시로 내 마음을 콕콕 찔렀으니 또 이런 글이라도 쓰는 거지!

장미를 싸다 남은 흩어진 질들을 모두 거두워 담보통이에 들로 막아 놓은 쓰레기 처리장에 쌓고 불을 질렀다. 불길의 충천한다. 활활 탄다. 타라! 활활 타라! 나는 그 불길에 착잡한 내 마음도 타고 아니꼬운 모든 것도 타는 듯이 어떤 환희를 느꼈다. 내 〈寒心〉이 훈훈해지는 느낌에서 오래 우두커니 그 불을 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마음 한 구석에 타지 않은 또 하나의 어떤 것이 나를 콕 찌른다. 그것은 왜 그걸 태워 버려느냐는 항의다. 요는 정말 추위에 떠는 장미가 보기 안돼서 싸 준거라면 남은 질을 들고 싸주지 못한 동리의 어느 집의 장미든지 싸 주어야 할게 아닌가! 그러니 나는 결국 장미자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마당의 장미나까 마음이 잔 것이라는 抗議다. 그렇게 보면 장미자체에 마음을 쓴게 아니라 '내것'이니까 마음을 쓰게 된 것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빌어먹을 놈의 신세! 이전 어디가서 무얼해도 결국 수도만 당해야 하는 八字! 이 따위로 생각하다간 말라죽겠다. 그때위 생각은 안듣기로 하자. 쌍!

그래도 난 말라 죽지는 않았다.

體重도 줄지 않았고 잠도 잘잔다. 그러니 그런 생각들도 순간적이고 난 내 삶의 리듬에 便乘해 사는 증거다. 그러고 보면 이런 감상을 글로 옮기는 것도 가끔 가시같이 쓰는 그런 것들은 처리해 버리려는 方法에 不過하다.. 그렇다! 정말 그것 뿐인가?

밤이 깊도록 공연히 시간을 보내다가 이불속으로 기어든다. 그런데 거기 또 가시가 있어 찌지 않는가! 내 두툼한 이불을 사용하는 것을 權利처럼 알고 기어드는데 느닷없이 콕 찌는 〈幻想〉! 〈집을 쓰고 살면서 이불까지 덮고 자? 무슨 權利로?〉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게 그런 수도받는 건 내가 벌어논 代價다. 까닭은 내가 이른바 〈사랑의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光州地方에서 생을 보낸 〈李空〉의 영상이 가끔 겹친다. 目擊者에 依하면 그는 언제나 방에 불을 때지 않았고 누메기 이불도 언제나 몸을 반쯤만 가리우고 잤단다. 까닭은 집없이 추위에 떠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는 또 벼 농사를 지어서 평생 보리밥으로 때우는 동리 사람들의 보리쌀과 맞바꾸어서 自身은 主로 보리밥만 먹었다고 한다. 이불을 덮으려면 가끔 그의 생각이 난다. 그렇다고 그의 흉내를 낸 일은 없다. 오



히려 그런 감상적인 행위로는 자기 위안은 될지 몰라도 참 걱정되는 가난한 자에게 도움될 건 없다. 정말 그런 생각이 진짜라면 더불어 먹고 사는 사회가 되는 개혁운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나는 의식적으로 그런 낡은 쟁의(聖者)의 일화를 일축해 버리곤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外面한 내가 사회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그렇지도 않다. 여기 또 自己 변명이 작용한 것이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를 본다. 이른바 사회개혁이니 혁명이니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바로 李空과 같은 마음이 결여된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이란 것이고 個個人의 生命을 파타 한 마리의 그것 만큼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결국 自家당착에 빠진게 아닌가? 李空은 단순히 理想主義만은 아니었다. 그는 사회개혁운동에 몸을 내미지는 않았지만 종당에는 自己의 財産을 송두리채 내놓았다. 그의 뜻은 後代에 結實되어, 現在에도 어디선가 말없이 小集團을 이루워 행위로 進行되고 있던 말을 들었다. 저들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私財을 다 팔아 모은 돈으로 황무지를 사서 개간하여 玉土를 만들고 거거 果樹들을 심어 自給할 만한 收入이 될 수 있게 되면 또 다른 황무지와 그것을 바꾸어서

그 地主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다시 그 황무지를 개간하는 과정을 계속 轉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줄되면 저를 한낱 감상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도의 간디의 弟子 비노바는 이른바 부단운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一種의 사회개혁 운동으로 土地의 分配운동이다. 그런데 그것은 法으로나 暴力에 依한 地主의 所有權을 뺏는 것이 아니라 地主들에게 더불어 살아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洞聖의 실정을 충분히 分析하여 數學적으로 제시한 다음 그들에게 土地喜捨를 설득하는 行脚의 길을 떠났다. 말하자면 理性的 바탕위에서의 사랑의 실행으로 土地개혁을 꾀하는 셈이다. 간디는 그래도 文明의 도구로서 기차를 利用했으나 그는 그런 것도 거부하고 그 넓은 印度 땅을 끝끝내 徒步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구라파에 있을 때 그를 數年間 따라다닌 英國記者의 상세한 報告書(冊)를 읽고 마음이 움직여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 (思想界)에 장문의 글을 낸 일이 있지만, 하여간 그만큼 내마음을 사로 잡았다. 그는 이 일이 다 이루어 질 때까지 다시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宣言하고 (出家)해서 순례의 길에

나섰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는 사회혁명을하고 法으로 制定하면 하루 아침에 될 일을 그때 위 남은 方法으로 어느 세월에 結實을 보겠느냐! 스스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소와 비난에 대해서 (너희들은 혁명가가 아니다. 남의 것을 暴力으로 뺏을려는 것이 무슨 혁명가냐! 나는 百年이 되고 千年이 되더라도 그 마음들에 호소해서 그 마음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참 혁명으로 안다. 나는 人間은 善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 善은 強制에서는 위촉되는 법이며 오직 호소에서만 自發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그의 입장은 고수했다. 人間愛를 관념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몸에 지

너지 얹은 혁명이란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현실에서 그는 그 나름의 第三의 길을 모색한 것이다. 칼을 쓰면 결국 칼로 亡하는 것은 일단 뽑은 칼을 제 손으로 칼집에 도로 넣을 수 없다는 歷史的 교훈 앞에서 비노바는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겨울철을 맞아 장미를 싸주는 마음에서 人間愛에 타는 불없는 혁명이란 시작하자 변질된다. 비노바는 마토이 (감상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人間愛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언제나 動力이 되는 범위안에서의 사회개혁을 꾀했던 것이다.

장미를 싸주다가 결국 비노바에까지 이루어진 내뿜은 어디서 무엇하나?

□ 神學思想文庫 □

1. 人類의 未來

G. 피히트  
孫奎泰譯

158면/값 400

2. 平和의 유토피아

W. 아이쿠만  
朴宗和譯

158면/값 400

3. 갈등 속의 삶

H. 쉴레메트  
李錫九譯

150면/값 400

發行處: 韓國神學研究所

대체 서울 511642 전화 76-9602